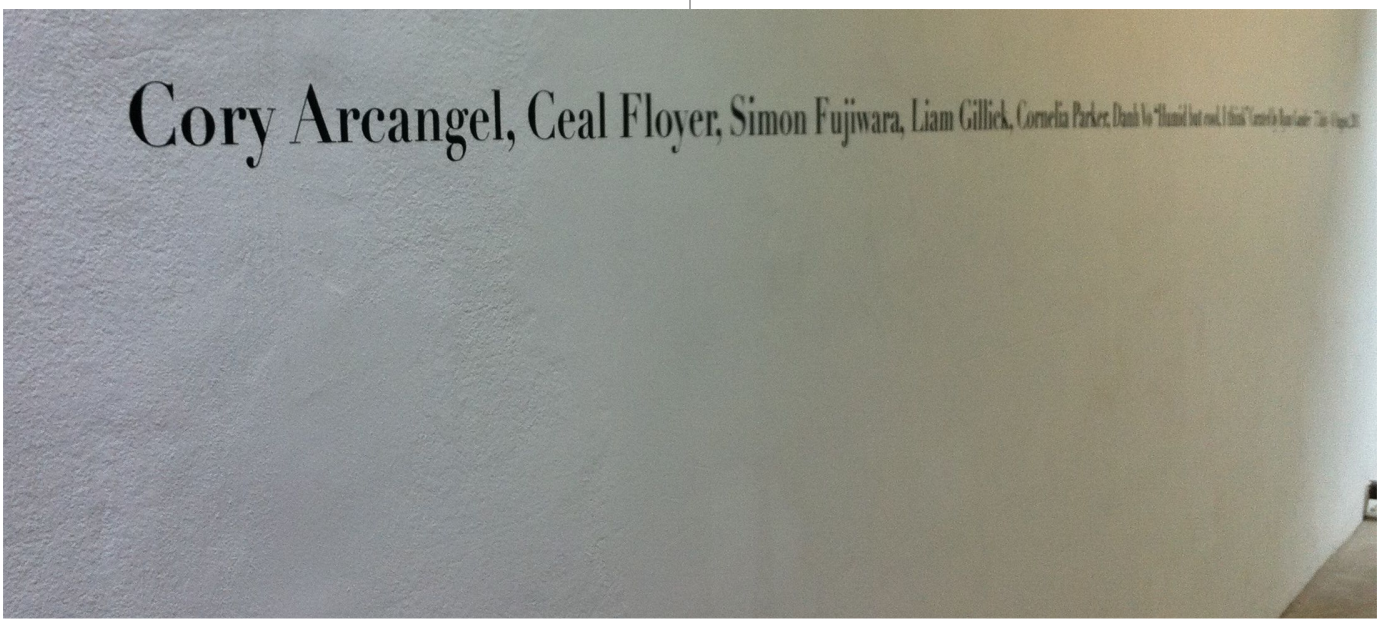
[TOKYO] Humid But Cool, I ThinkU

ABROAD

2011 / 07 / 23

공혜정

7. 7 ~ 8. 6 타로나스갤러리(http://www.taronasug-allery.com/)



전시장 입구

올해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참가하며 현재 1223현대회화 갤러리(http://www.gendaikaiga.com/)-에서<Meaning...Surrounds Me Now>전을 열고 있는 영국 개념 미술가 라이언 간더(Ryan Gander)가 6명의 작가를 큐레이팅한 전시가 열린다.



씨엘 플로이에 <Cumulus> 사이먼 후지와라 <The Man in the Mexican, the Mexican in the Man> 리암 길릭 <-Endings> (왼쪽부터)　©Ceal Floyer Courtesy of Lisson Gallery, London©Simon Fujiwara©Liam Gillick Courtesy of ESTHER SCHIPPER, Berlin©Cory Arcangel Coutesy of Team Gallery, New YorkAll Courtesy of TARO NASU

참여 작가는 90년대 yBa(young British artists)를 대표하는 리암 길릭(Liam Gillick), 2009년 백남준아트센터상을 수상한 씨엘 플로이에(Ceal Floyer), 2004년 휘트니 비엔날레에 선출되어 주목을 끌어 온 뉴욕 기반의 아티스트 코리 아켄젤(Cory Arcangel) 등 개념 미술 작업을 하는 중진 작가 3명과 신진 작가 3명을 포함 총 6명의 작가들이다.

찌그러진 코카 콜라 캔이 가득 들어간 쓰레기통 모양의 코리 아켄젤의 작품 <To Protect Taste>, 멕시코 앤티크 의자와 자켓, 신발 등을 조합하여 만든 사이먼 후지와라(Simon Fujiwara)의 <The Man in the Mexican, the Mexican in the Man> 등 개성 강한 이들의 작품은 각각의 분리된 공간에 배치되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참여 작가 단 보(Danh Vo), 리암 길릭, 사이먼 후지와라, 씨엘 플로이에, 코넬리아 파커(Conelia Parker), 코리 아켄젤